

인천시 4개 도서관, 스마트 K-도서관 선정 쾌거

- 미디어 촬영 및 편집 가능한 스튜디오 등 공간 조성 -
- 창작·체험 공간 제공, 독서문화행사 온라인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 필수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 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 지원 사업」에 영종도서관 등 인천시 공공도 서관 4개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 사업'은 공공도서관 내 미디어 콘텐츠 체험·제작 공간 조성 지원을 통해 대 시민 미디어 문화 향유 확대 및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에서는 영종도서관, 율목도서관, 부평구립 부개도서관이 우선 선정됐고, 이후 수봉도서관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4개관 선정, 국비 총 9,833만원을 확보했다.

각 도서관에서는 올해 말까지 기존 운영 공간 내 미디어 촬영 및 편

집이 가능한 스튜디오 등 공간을 조성 후 이를 활용해 시민 창작·체험 공간 제공, 계층별 미디어콘텐츠 제작 교육, 독서문화행사 온라인특강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호석 인천시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공공도서관의 기능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며, "기존 정보보유·전달의 기능에서 생산·배포의 역할을 더해 시대 필수적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